

제 65 호

# 에이트리

치유정원  
'십자가의길 제XIV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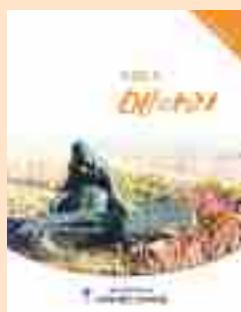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제65호

메아리

2021. 1



발행일 | 2021년 1월 10일  
발행인 | 남금숙  
편집인 | 편집위원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우)32907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 1166  
Tel. 041)732-2085, 0889 Fax. 733-0587

# CONTENTS

## 03. 여는글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 남금숙 원장

## 04. 알림글

윤○씨의 자립이야기 / 생활1팀 염주란

## 05. 봉사자글

나눔과 편견해소를 위한 성모의마을 봉사활동  
/ 논산정신요양원 주영수

## 06. 프로그램

우리의 일상  
(노래교실, 영화관람, 피부마사지, 산책, 개별화, 금전훈련,  
건강프로그램, 외식, 카페, 놀이·심리상담)

## 07. 거주인글

2020년 경자년을 보내며 그리운 것

## 08. 거주인글

2021년 신축년 이루고 싶은 소망

## 10. 종사자글

입사 20주년을 맞이하며... / 생활지도원 박지연

## 11. 사랑방

소소한 행복의 소중함을 추억하며... & 정성으로 채운 김장  
/ 영양사 이소영

## 12. 소식방

- 기능보강사업 : 승강기 교체 공사 및 물리치료 장비 구입
- 스마일재단,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2020년 구강교육자료 및 구강위생용품 지원사업
- 거주인 인권 교육 / 남상용 회갑 / 장기근속

## 13. 직원동정

신입직원 / 정년퇴직

## 14. 정보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15. 사진첩

## 16. 후원 및 자원봉사

## 18. 후원금 수입지출현황

## 19. 성모의기사수녀회

## 여는글

##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코린 2,15)



남금숙 원장

† Maria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0.12.08.~2021.12.08) 1년간 ‘성 요셉의 해’ 선포를 하시며 성 요셉은 “드러나진 않지만 매일 인내의 삶을 살고, 공동 책임의 씨앗을 뿌리면서 희망을 키우는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명확히 깨달았다. 주목받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고 드러나지 않게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자 “구원 역사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성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축(辛丑)년 새해를 요셉성인의 모범을 본받아 역경과 시련의 시기를 잘 헤쳐 나가길 희망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스크 사용은 익숙해졌고, 소독과 손 씻기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제약으로 고단한 한해를 보냈지만, 거주인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잘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의 날들을 시작해야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쉽게 우리곁을 떠나지 않으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주인들이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웃을 통해 저희에게 와 달음을 매순간 느끼게 해 주신 후원자님과 봉사자님!!  
신축년 새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알림글

## 윤○씨의 자립이야기

염주란  
생활1팀장



25년 동안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모의마을에서 긴 여행을 했다는 김 윤○씨가 드디어 자립을 하였다.

‘나는 성모의마을이 좋아’ ‘자립은 안할 거야’라고 농담반 진담반 늘 이야기 했던 윤○씨에게 2019년 따뜻했던 봄날.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 흡에서 실시하는 단기체험의 기회가 주어졌다. 2박3일의 짧은 체험기간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윤○씨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다.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8월 즈음 ‘자립을 해볼까?’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권유 했을 때는 반응이 없더니,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단기체험 때 도움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도 자립을 통해 노력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윤○씨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성모의마을에서도 거주 장애인들을 위해 자립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 자치학교 자립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 센터들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자립을 하고 싶다고 해도 자립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것만은 아니다. 윤○씨도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고, 자립이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종사자로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여동생과 몇 차례 전화 상담을 하며 윤○씨의 앞날을 가족들도 함께 응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윤○씨와 함께 자립 생활을 계획하였다. 제일 먼저 시설에 입소하여 제약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보기로 했다.

윤○씨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혼자서 영화관 입장하기, 프로그램 때 나갔던 경험을 살린 첫 외출은 성공적이었다. 자립생활 자치학교, 여수문화체험, 기관에서 지원했던 1박2일 일상생활훈련 등의 경험들을 가지며 한발 한발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준비하였다. 1박 2일 일상생활훈련을 하던 날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뚝뚝 칼로 자르는데 왜 그렇게 마음 좋이며 걱정이 되던지... 반면 윤○씨는 오히려 너털웃음을 지으며 나를 톡剔여주고 덤덤한 모습이다. 따뜻한 봄날 자립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의 방해로 무더운 여름이 되어야 성모의마을에서의 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또 다른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딛었다.

자주 소식전하며 지내자고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얘기했더니 하루 지나고 안부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윤○씨의 밝은 목소리가 웬지 모르게 생기 있어 보인다.

윤○씨 스스로가 선택한 삶이 후회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길 두 손 모아 응원한다.  
윤○씨 파이팅!!!!!!



## 봉사자글

# 나눔과 편견해소를 위한 성모의마을 봉사활동

주영수

논산정신요양원 재활지원팀장

어울림사회봉사단은 시설 생활인들이 활동에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실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0년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매월 15여 명의 생활인들이 성모의마을을 찾아가 외곽청소, 주방과 피복/세탁실에서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한지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한 상월면사무소와도 환경정화활동으로도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봉사활동도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답니다.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성모의마을에서 과연 활동을 제공하고 생활인들도 정말 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며 시작된 어울림사회봉사단 활동이 이젠 서로 간에 보람과 뿌듯함으로 연결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20년 넘게 한 결 같이 생활인 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편견 없이 포용해주며 나눔 활동을 선뜻 제공해 주고 계신 성모의마을 원장님을 비롯한 시설 종사자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 하였고 이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때론 생활인 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증상 변화로 인해 간혹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잘 경청해주고 배려해 주기에 생활인 분들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발돋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모의마을과 논산정신요양원이 오랜 자원봉사활동으로 기나긴 인연이 되어 사회복지시설 간에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도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기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향상에도 남 다른 의미가 있다고 자부 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활동이 어렵고 생활인들 또한 언제 갈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활동이 재개되길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기에 여느 때의 일상처럼 성모의마을과의 인연이 부푼 희망으로 다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나눔 활동을 통해 생활인 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편견들이 정신장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신장애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이며 이러한 사회의 편견이 그들에겐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기에 성모의마을에서의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이 앞으로도 인식개선에 있어 좋은 출발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 우리의 일상

올해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활동에 제약과 어려움으로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거주 장애인의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비록 외부프로그램 진행을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내부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날들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 거주인글

## 2020년 경자년을 보내며 그리운 것

이예○

- 성모의마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자원봉사자 친구가 그립고 많이 보고 싶은 한해였다. 어떻게 지내는지 더 예뻐졌는지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다. 내년에는 다시 꼭 만나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다.

신난○

- 오래전 헤어진 엄마가 보고 싶다. 올해는 다른 거주인들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는 자원봉사자도 만나지 못해 엄마가 더 그립고 보고 싶다.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보고 싶었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장은○

- 외부인의 출입이 없어 사람이 그립다. 자원봉사자들, 외부에서 오시던 공연팀, 가족들 모두 그립다. 외부인의 출입이 없으니 고립된 듯한 기분에 마음이 많이 쓸쓸했다.

박미○

- 외출이 그리웠다. 봄·가을 소풍, 외출 등 다른 거주인들과 직원들과 함께 하는 외출이 없이 시설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답답했다. 외출해서 먹었던 맛있는 외부 음식도 그립고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바람도 그립다.

황선○

-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너무 너무 그립다. 직접 만나 얼굴 보며 즐겁게 얘기하고 싶다. 엄마 얼굴을 손으로 만져 보고 싶다. 떨어져 만나지 못하니 엄마의 사랑이 더욱 더 그립다.

전혜○

- 목사님이 그립다. 목사님과 만나 인사하고 손을 잡고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다.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라고 매일 기도한다.

최현○

- 가족들이 그립다. 가족들과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지만 직접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 하고 싶다. 특히 영국에 있는 남동생이 많이 보고 싶다. 항상 나를 챙겨 주는 남동생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다 만났으면 좋겠다.

윤희○

- 오빠와 언니들이 많이 아주 보고 싶다.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며 웃으며 이야기 하고 싶다. 그동안 잘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궁금하다.

임정○

- 엄마와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그립고 집에 너무 가고 싶다.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의 넘치는 사랑과 관심이 있다, 집의 포근함과 사랑이 그립고,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이병○

- 어머니,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그립다. 코로나 19로 집에도 못가고 전화만 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도 먹고, 식구들 다 같이 이야기도 하며 동네도 한 바퀴 돌고 싶다.

최영○

- 꼴베 하우스에 부모님, 고모님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해먹으면서 지냈던 시간이 너무 생각난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술도 주문해서 같이 마시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가족들이 모였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정제○

-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하늘의 별이 된 동생이 너무 보고 싶다. 돌봐준 성모의마을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이다.

박철○

- 가족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외출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다. 성모의마을 문을 열고 들어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립다.

봉사자글

## 2021년 신축년 이루고 싶은 소망

성모의마을에 크고 좋은 새 버스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올해에 버스가 폐차되어

- 최현○**
- 나는 걱정이다. 버스가 없으면 다른 거주인들과 함께 하는 외출이 어려울 것이다. 올해는 성모의마을 거주인들의 외출과 외부 활동을 도와줄 크고 멋진 버스가 생겼으면 좋겠다.

꼭 이루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같이 밴드 활동을 하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다.

- 박미○**
- 같이 웃고 떠들던 어린 시절 그 시절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 친구들이 나를 보면 슬플 수도 있지만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 홍순○**
- 태어난 조카와 동생가족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 조카가 너무 궁금하다.

- 이성○**
- 소박하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어머니, 형제들, 가족 모두가 모여서 살고 싶다.
  - 상금은 이왕이면 50억!~^^

- 김부○**
- 노래방에 직접 가서 탬버린도 신나게 흔들며 실컷 노래도 불러보고 싶다.

- 임정○**
- 2021년에는 마음도 내 주머니 사정도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이 내 바램이다. 마음이 넓어 어떤 상황도
  -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돈도 많아져 주머니도 부자가 되고 싶다.

- 최영○**
-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건강할 때 외국여행을 또 가고 싶다.

- 김현○**
- 희망은 언제나 앞에 있는 것! 오랜 시간 미사를 못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리고 싶다.

- 장은○**
- 코로나시대가 빨리 종식되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했으면 좋겠다.
  - 미용봉사자분들도 빨리 만나고 싶고, 공연팀도 많이 와서 성모의마을이 항상 사람들로 시끌벅적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서○

- 남북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와 가족들을 마음편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예○

- 집을 방문하여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 재미있게 놀고 싶다.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도 듣고 밤새 놀고 싶다.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것도 함께 하며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박철○

- 가족여행을 다시한번 가고 싶고, 귀여운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

황선○

-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와도 만나고 집도 방문하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현재는 없는 자유로움이 내년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신난○

- 2021년에는 그리운 엄마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엄마에게 멋지고 근사한 선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엄마에게 선물을 해본 적이 없다. 엄마에게 멋진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싶다. 엄마가 좋아하는 얼굴이 떠오른다.

전혜○

- 그리운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싶고 동생들도 만나고 싶다. 내년에는 동생들이 방문해서 꿀베하우스에서 같이 잠도 자고 음식도 해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윤희○

- 2021년에 나의 소망은 건강이다.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지금보다 더 아프지 않는 것이다. 어쩔 때는 몸이 너무 아파 선생님들에게 괜한 짜증도 내서 미안할 때도 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아프지 않는 거 그거 하나 바랄뿐이다.

종사자글

## 입사 20주년을 맞이하며...

박지연  
생활지도원



면접을 보기 위해 긴장된 마음을 다독이며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저에게 또 다른 세계가 열렸고, 마치 여행자처럼 한동안은 매일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수녀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거주인분들과 대화할 때는 언어 뿐 아니라 눈빛, 표정, 손짓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맑은 눈에 반짝임과 기대감을 담아 눈동자를 움직여 대화를 하다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찾을 수 있다는 것, 간혹 알아채지 못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대신 이야기 해주며 자연스럽게 소통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는 양손이 아닌 한쪽 발을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으며, 고개를 돌려 방향을 보며 거꾸로도 갈 수 도 있다는 것, 전동휠체어와 몸에 맞는 보장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 등 이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미처 몰랐을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친절과 호기심이 가득한 거주인들과 동료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함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제2외국어처럼 거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여러 명을 응대하며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시작으로 누군가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론 서툴고 미흡해서 실수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이제는 농담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금의 성모의마을은 몇 번의 리모델링을 통해 좀 더 따뜻함과 안락함이 덧입혀졌고, 거주인분들도 나이가 들었다는 것 외에는 예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별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기억이 된 분들! 그래서 더욱 보고 싶고 그리운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전보다 익숙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거주인분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어설픈 저와 함께 해주신 거주인분들과 선후배 동료, 성모의마을에 이번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는 동안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 사랑방

# 소소한 행복의 소중함을 추억하며...

이소영  
영양사



누구도 마음 편히 어디를 다닐 수 없는 시간들로 채워진 2020년 한해가 스르륵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모의마을 거주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이면 소풍을 가고, 명절엔 고향에 가는게 큰 즐거움이었는데 그 즐거움을 코로나라는 불청객에게 오롯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계절이 변해가는 걸 바라보기만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껴야 하는게 안타까워 소풍을 갈 때마다 맛있게 먹었던 김밥을 거주인들께 직접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먹기는 간단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쉽게 해드리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었는데, 이에 흔쾌히 조리실로 내려와 도움주신 선생님들의 손길에 정성 가득한 엄마손김밥이 탄생했습니다. 김밥과 함께 떡볶이, 어묵탕을 세트로 드시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며 이 작은 일에도 좋아하시는 거주인들의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포기하게 된 것이 많아 아쉬움이 큰 한해였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내어 흘러가는 시간을 모두가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 정성으로 채운 김장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많은 봉사자와 후원의 손길에 도움을 받아 풍성한 김장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봉사자의 손길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유례없는 긴 장마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 폭등한 김장재료 가격에 대한 걱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추를 후원해 주신 허윤강 교수님과 보호자 박종은님, 바쁜 일과 중에도 손길을 보태주신 직원들의 도움으로 맛있는 김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양은 줄었지만 어느 때보다 직원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를 보니 마음 한켠이 보람으로 차오릅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조금은 이르게 찾아온 추위에 움츠려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과 작은 손길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보태주시는 직원들이 있어 올 겨울도 마음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소식방

### 기능보강사업 (승강기 교체 공사 및 물리치료 장비구입)

논산시 지원으로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공사 및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25년 동안 사용했던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 승강기로 교체하였고, 거주인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물리치료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 스마일재단,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2020년 구강교육자료 및 구강위생용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구강교육자료, 구강위생용품, 구강관리용 석션기를 지원받았습니다.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익히고 정확한 시기에 구강관리용품을 교체하여 건강하게 구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스마일재단과 행정안전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거주인 인권교육

#### \* 1차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하는 거주인 인권교육은 대전동부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님을 모시고 생활 속에 녹아있는 인권들을 돌아보며 거주장애인들의 소중한 인권들을 찾아보는 시간과 학대유형 및 사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2차

논산 놀뫼중증장애인자립센타에서 지원하는 거주인 인권교육으로 대전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타 소장님이 제작한 인권영상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남상○회갑

트롯음악을 사랑하고 웃는 모습이 멋진 남상○씨의 회갑잔치가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할 순 없어 아쉬움은 있지만 성모 거주인들과 직원들의 축하를 받고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장기근속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년 근속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성모의마을 가족 모두 기도합니다.





직원 동정

## 신입직원 소개

생활지도원 이승하

첫 출근을 한지도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걱정과 기대로 출근했던 그날이 아직도 잊혀 지지가 않습니다. 처음 보는 거주인분들께서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덕에 한결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둘 시작하였지만 아직 외부 프로그램 진행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사태가 끝나 거주인분들과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5개월 아직 서툰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거주인분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성모의마을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원 김현우

처음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때 일방적인 도움과 사랑을 주는 직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받는 사랑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모의마을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거주인분들께 받을 사랑을 기대하며 출근을 하였고, 받은 것 이상으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며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매일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거주인분들과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아쉽지만,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 소중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많이 웃어주시고 가깝게 다가와 마음을 나누어 주신 모든 거주인분들께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갚아 가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조리원 박순미

새로운 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어느덧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동료 분들이 잘 쟁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밝은 에너지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년퇴직 인사

거주인들의 건강을 위해 물리치료를 해주신 물리치료선생님께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치료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인생 2막을 응원 합니다~!!



정보글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1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장애인인 가지는 권리, 인권 이것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꿈꿔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의 4가지 유형

- ①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② **간접차별** :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③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한 사정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④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나타내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① **고용(제10, 제11조)**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며 동등한 조건과 편의를 제공해야 함.
- ② **교육(제13조, 제14조)** : 장애인의 입학, 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의 참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편의를 제공해야 함.
- ③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이용(제15조, 제17조)** :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부 배제해서는 안 됨.
- ④ **시설물의 접근이용(제18조)** :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편의를 제공해야 함.
- 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편의를 제공해야 함.
- ⑥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제20조, 제21조)** : 공공기간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장애에 특성에 맞는 수단을 제공해야 함.
- ⑦ **문화예술 체육 활동(제24조, 제25조)** : 시설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편의를 제공해야 함.
- ⑧ **사법 행정절차 및 참정권(제26조, 제27조)** :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 서비스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편의를 제공해야 함.
- ⑨ **모부성권 성등(제28조, 제29조)** :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에 있어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짐.
- ⑩ **가족 가정 복지시설(제30조)** :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은 동의 없이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됨.
- ⑪ **건강권(제31조)** : 의료기간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을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⑫ **괴롭힘의 금지(제32조)** : 장애인은 모든 폭력에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모욕감을 주거나 학대, 착취를 해서는 안 됨.
- ⑬ **장애인 여성 장애아동(제33조, 제35조)** : 장애여성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됨.
- ⑭ **정신적 장애인(제37조)** :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 됨.

##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09.07 충남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10.16 위생교육



11.06 거주인 영양교육



11.10 거주인 자치회의



11.13 종사자 소방교육



11.20 감염병 예방교육

12.10 응급처치 및  
감염병 예방교육

12.30 종무식

## 봉사와 방문 감사합니다



07.03 아바바 커피농장



07.05 부여성당



09.04 삼광의료재단



10.24 부여성당



12.15 논산홈플러스



12.16 대전성모병원 간호부



12.24 상월면(도원정사)



12.24 해군본부



# 사랑을 주신분들입니다

성모의마을에서는 매월 넷째 주일에 후원자님을 위한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 신규 후원자 : 첫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명아주구조기술, 공인회계사세무사김명희사무소, 김용묘, 노지웅, 논산내동성당, 박순미, 박순영,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서강메디칼, 성모병원간호부, 예수수도회, 이경은, 이소영, 이정자, 임규환, 임창완, 월드카센타, 조경덕, 최윤영, 표형순, 황명선, 현길준

## ●●● 후원자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존경배려나눔회, 건축사무소이노건축, (주)대율, (주)대일소방, (주)동명스틸, (주)라이온켐텍, (주)리드텍, (주)제넷바이오, (주)진미식품, (주)휴베나, 궁골식품, 기아자동차대룡대리점, 대림농장, 대전교구청, 대전성모기사회, 대형환경(주), 더블유여성병원, 동덕엔지니어링, 동수기전, 법무법인둔산, 성모의기사수녀회, 아이러브피플, 육군계룡사랑후원회, 윤메디팜약국, 이형섭복지재단, 정다운한의원, 제일신경과, 태양철물건재상사, 하나병원, 한국드라이베아링(주), 한국타이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해군정보화기획실

강덕일, 강명순, 강신균, 강애선, 강영미, 강영수, 강인숙, 강정미, 강차중, 강창희, 강호정, 고미옥, 고순덕, 고연승, 고영숙, 고태성, 고효진, 곽동용, 곽성훈, 곽전구, 곽태희, 구자희, 구청자, 권기문, 권상로, 권상희, 권수연, 권순임, 권연택, 권영건, 권은찬, 기영진, 길기진, 길숙종, 김경미, 김경숙, 김경임, 김근태, 김기, 김기순, 김기철, 김길자, 김낙운, 김남순, 김덕, 김동일, 김동화, 김명식, 김명중, 김명화, 김미선, 김미숙, 김미애, 김미영, 김미현, 김민관, 김병민, 김복수, 김봉진, 김봉희, 김상현, 김석화, 김석환, 김선아, 김선엽, 김선중, 김성남, 김성환, 김소영, 김수복, 김수자, 김수현, 김수희, 김숙영, 김숙희, 김순자, 김양숙, 김양식, 김양임, 김연희, 김영규, 김영분, 김영숙, 김영심, 김영옥, 김영자, 김영택, 김영희, 김용구, 김용철, 김웅전, 김윤미, 김윤중, 김윤하, 김윤환, 김은미,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형, 김의승, 김익현, 김인숙, 김일우, 김정란, 김정숙, 김정옥, 김정하, 김정호, 김정희, 김종숙, 김종심, 김종영, 김종윤, 김주영, 김준, 김준호, 김진숙, 김진식, 김진아, 김진연, 김진자, 김진팔, 김진희, 김창수, 김창식, 김창현, 김철수, 김춘달, 김춘자, 김태운, 김한준, 김현수, 김현옥, 김혜경, 김혜정, 김혜지, 김홍순, 김홍식, 김희경, 김희성, 김희순, 김희옥, 나판균, 남궁각, 남금숙, 남봉우, 남상숙, 노광원, 노덕영, 노애선, 노영례, 노은숙, 노정애, 노희숙, 도인록, 류관숙, 류양호, 류영미, 류윤선, 류재율, 류홍, 모상선, 목동균, 문경희, 문선영, 문창규, 민경식, 민병학, 민선옥, 민애란, 박광천, 박광필, 박근수, 박문평, 박미나, 박미희, 박병삼, 박삼현, 박서은, 박선경, 박선영, 박선용, 박선호, 박성배, 박순주, 박승우, 박승현, 박영숙, 박용성, 박윤자, 박윤희, 박은미, 박은숙, 박은정, 박용천, 박점단, 박정희, 박종은, 박종희, 박주완, 박준성, 박지연, 박진옥, 박진홍, 박찬무, 박찬배, 박찬주, 박찬현, 박찬희, 박창규, 박창기, 박춘지, 박해운, 박해임, 박현미, 박현숙, 박혜경, 박효식, 방계순, 방연옥, 방영자, 배승호, 배종찬, 배지명, 백길종, 백승준, 백진기, 변경봉, 변두균, 변평섭, 변혜숙, 복진을, 부모회, 서경자, 서광자, 서교분, 서교택, 서단아, 서영숙, 서장원, 서정석, 서지연, 선우환호, 선희순, 설비선, 성상엽, 성정모, 성희창, 소성섭, 손경미, 손동래, 손세욱, 손은숙, 손형기, 송경배, 송기성, 송명옥, 송재훈, 수상덕, 승병희, 신미숙, 신미순, 신미애, 신상오, 신숙희, 신연화, 신정자, 신진호, 신향순, 신호철, 신효신, 심명옥, 안남순, 안동숙, 안명순, 안문숙, 안미훈, 안상길, 안성호, 안소영, 안종희, 안추영, 양건, 양미경, 양승란, 양옥석, 양인일, 양태식, 어완, 엄기성, 연제혁, 염규홍, 염명란, 염미란, 염윤자, 염주란, 오경순, 오광순, 오대석, 오명학, 오민순, 오봉학, 오숙자, 오연임, 오웅수, 오일교, 오점숙, 오주영, 오준식, 오춘이, 오한나, 오현경, 오혜원, 오화진, 온유진, 우인자, 우전, 우정화, 우제춘, 원용희, 원재화, 원종철, 유경희, 유명희, 유미, 유부림, 유석종, 유선희, 유연희, 유영구, 유영민, 유영주, 유영철, 유이선, 유인운, 유재현, 유향옥, 유혜영, 유클리, 유클리, 윤길중, 윤문경, 윤병숙, 윤수자, 윤순자, 윤여분, 윤여직, 윤여철, 윤영광, 윤영섭, 윤영희, 윤옥자, 윤완규, 윤재명, 윤진영, 이강우, 이경난, 이경미, 이경순, 이경옥, 이

경자, 이광수, 이규옥, 이기남, 이기상, 이다리야, 이도엽, 이도영, 이동수, 이동엽, 이동효, 이두화, 이명수, 이명자, 이미영, 이미옥, 이민옥, 이민표, 이병숙, 이병진, 이상범, 이상영, 이상은, 이성민, 이성순, 이성하, 이세혁, 이수경, 이수형, 이순옥, 이순조, 이승남, 이승훈, 이연희, 이영란, 이영미, 이영애, 이영임, 이영희, 이웅호, 이원길, 이원웅, 이원종, 이월향, 이유미, 이윤복, 이윤규, 이은수, 이은진, 이은철, 이인한, 이인엽, 이장, 이장현, 이장흠, 이장희, 이재순, 이재승, 이재연, 이정구, 이정규, 이정미, 이정원, 이존오, 이종숙, 이주경, 이준복, 이진경, 이진의, 이진형, 이충근, 이치자, 이택주, 이한별, 이해운, 이해인, 이향래, 이현수, 이현숙, 이현희, 이해숙, 이해옥, 이해진, 이호덕, 이홍천, 이화석, 이화연, 이홍재, 익명, 임경수, 임경옥, 임덕순, 임동훈, 임미자, 임민준, 임민찬, 임범택, 임상수, 임서윤, 임성구, 임세영, 임재신, 임찬욱, 임향빈, 임혜숙, 장경수, 장기욱, 장동수, 장명호, 장순자, 장영희, 장우상, 장원재, 장유창, 장정숙, 장진영, 장진희, 장한순, 전경희, 전광운, 전남숙, 전선아, 전연인, 전용달, 전창선, 전혜련, 전희선, 정경근, 정경미, 정경순, 정경애, 정계순, 정병호, 정석환, 정선미, 정선주, 정연수, 정연희, 정우진, 정은남, 정은석, 정은선, 정은주, 정재구, 정지풍, 정지현, 정태형, 정하양, 정혜숙, 정화숙, 정환림, 정훈경, 조규정, 조남욱, 조마르타, 조성혁, 조숙자, 조숙희, 조영갑, 조영록, 조영홍, 조옥분, 조유성, 조진, 조한수, 조현, 주현우, 지영옥, 직원상조회, 진경덕, 진경자, 차옥남, 차은, 채경란, 채미자, 최관집, 최금옥, 최덕화, 최명희, 최백석, 최범순, 최상윤, 최상태, 최선, 최선진, 최성근, 최순옥, 최영범, 최영은, 최영훈, 최우연, 최윤정, 최인규, 최인영, 최재원, 최정길, 최주희, 최해경, 최혜수, 최혜연, 최효인, 최희례, 추현진, 편재영, 하금란, 하영호, 하옥경, 하태천, 한강섭, 한명화, 한상조, 한선화, 한원규, 한치권, 하신자, 허홍근, 현현섭, 호승환, 흥건표, 흥광표, 흥근선, 흥명숙, 흥성욱, 흥승무, 흥예인, 흥윤정, 흥은실, 황규홍, 황명구, 황선주, 황선철, 황정희, 황태성, 황현숙

## 물품후원

고은어버이집, 궁골된장, 김도희, 김동민가족, 김용구, 김혜리 가족, 갈매못성지, 논산푸드뱅크, 논산시청농업회사법인팜팜, 논산홈플러스, 문희원가족, 바보의나눔재단, 박서용가족, 박성수가족, 박종덕가족, 박해임, 삼광의료재단, 상월면사무소(도원정사), 성낙순가족, 성모병원간호부, 소경숙, 송인평, 신근철가족, 씨튼영성의집, 예수수도회, 이기범, 이동기가족, 이동우가족, 이소영, 이예지가족, 이은규, 이지희가족, 임세영, 임순선, 정규연가족, 정제욱가족, 조경덕,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충남도청, 한국장애인복지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해군본부, 한마음약국, 화진산업개발, 황주현

\* 알림 -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

### | 생필품 |

세제, 고무장갑, 휴지, 성인용기저귀, 락스, 물티슈, 비닐장갑 등

### | 식 품 |

과일 및 간식류

### | 그 외 |

냉장고, TV,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

##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정기자원봉사팀

부여성당

### 그 외 봉사해주신 분들

아바바 커피농장, 박미카엘라

### 꽃꽂이봉사

박현미, 김명식

폐차로 인해

**장애인특장차량 15인승**이 필요합니다!





### 후원가입신청안내 (한사람 더 후원회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전화 또는 성모의마을 홈페이지(www.smo.or.kr)를 통해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전화, 지로용지를 이용해 주시고 가입 후에는 회원증과 함께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하여

####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아래 계좌 중 자동이체가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모의마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변경시 참고)

#### 폰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폰뱅킹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은행 대표전화(아래)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연결하여 본인 확인 후 아래의 계좌번호 중 자동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말씀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 후원계좌번호

#### 법인후원계좌번호

- |        |                  |                    |
|--------|------------------|--------------------|
| • 농 협  | 461058-51-011210 | (대표전화 : 1588-2100) |
| • 국민은행 | 457-25-0005-696  | (대표전화 : 1588-9999) |
| • 하나은행 | 663-113251-00105 | (대표전화 : 1588-1111) |
| • 신한은행 | 100-009-187570   | (대표전화 : 1577-8000) |

- 예금주 -  
성모의마을

#### 시설후원계좌번호

- |       |                  |                    |
|-------|------------------|--------------------|
| • 농 협 | 351-0762-7852-13 | (대표전화 : 1577-2100) |
|-------|------------------|--------------------|



### 후원금수입지출현황 (2020년 07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과 목 명	금 액	과 목 명	금 액
이월금	219,014	급여	47,556
지정후원금	-	제수당	12,955
비지정후원금	164,779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783
		사회보험부담비	5,895
		회의비	680
		수용비 및 수수료	8,715
		공공요금	20,352
		제세공과금	4,333
		시설비	7,561
		시설장비유지비	17,355
		연료비	4,781
		자산취득비	7,254
		생계비	2,991
합 계	383,793	합 계	146,211

# 콜베 성인의 영성을 살아가는 성모의기사수녀회에 초대합니다.



## [창립]

본 회는 1917년에 로마에서 원죄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litia Immaculatae:M.I)를 설립하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유지를 받은 미에치슬라오 미로하나 신부에 의해 1949년 일본 나가사끼에서 창립되어 M.I의 정신으로 사는 수녀회입니다.

## [정신]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정신에 따라서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에 의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성심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 [사도직]

일본, 폴란드, 한국에서 M.I의 정신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출판사업과 한국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모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소자모임>**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문의 : 041-732-3583(수녀원) 041-732-2085, 0889(사무실)

성소담당자 : 010-3399-3583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1166(대촌리 122-1) 우)32907

※ 성소상담 수시 가능

홈페이지 : [www.fsomik.co.kr](http://www.fsomik.co.kr)

## 성모의마을 찾아 오시는 길

### >> 서울 수도권에서 찾아올 경우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정안IC<22.2Km> 약40분 소요 → 공주 · 논산방향(국도23번)

→ 유평교차로 신원사방향(지방도로697) → 연산방향(지방도로697번) → 대명초등학교(1.5Km) → **성모의마을**

### >> 대전 영남권에서 찾아올 경우

서대전IC<40Km> → 대전~논산간(국도1호선) → 연산검문소(우회전), 연산삼거리에서(12Km)

→ 상월방면(697번 지방도) → **성모의마을**

$\frac{1}{2} + \frac{1}{4} + \frac{1}{8} + \frac{1}{16} + \dots$

수렴합니다.

